

中國의 中醫藥大學 韓國留學生 現況, 問題點 및 對策

이 선 동* · 문 용**

ABSTRACT

The Present Situation, its Controversial Points and its counterplans of Korean Students who are Studing Chinese Medicine in China.

For last four or five years, the number of korean sutdents have gone on increasing awfully. After the year 1997 when they will flow in, our field and government will be undergone a big shock and social problems. Therefore, thorough grasping and the method of provision is expeced to need.

1. The situation,

According to the data published from the year 1993 to 1997, their results are great different. But recent Korean embassy in China examined the situation of the Korean students, whose result was investigated as follows: about 1500 persons, their average age is 24 to 44, the ratio of male and female students is 3 to 1, that of their academic background which is a graduate of university : that of college : that of highschool is 1.6 : 1 : 4.7, and that of their class attitude which is direct : common : indirect appears the percents 30.4 : 52.8 : 16. 8.

*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중국북경의과대학 교수

2. The controversial points

① A lowering of standards on Chinese medical treatment is expected by the imprudent studying abroad without qualification. And because of excessive production of herb doctors, the amount of treatment may be above people's demand. Besides owing to the impossibility of prediction on the number the counterplans of our government may fall into utler confusion.

② The curriculum, the teaching schedule and contents are so different that the graduates seem not to be given real education of chinese medicine from the point of Korean view.

③ In the wrong national examination, the important thought of china, and the system of WTO in Korea, when China will become mighty rival above problems contain the negative sides.

3. The counterplans.

- what should be performed soon.

① Illegal contents about studying abroadl in Chna ought to inform sidely that students might not go on increasing. Before they form nam-power, the government and the field of chinese medicine should cope with such a situation together.

② The law of regulation about agents should be legislated and they should be surpervised.

③ The exact numbers of students, their situation,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each university should be examined.

④ After investigating the problems of the present system of national test, its enforcement and many counterplans is requisite.

⑤ The cooperating confrontation with the conference of dentistry is in need.

⑥ Since the problems are possibility to be developed to diplomatic questions, the effort of both nations is needful.

- what need middle or long time.

① The effort that suppress the more establishment of th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is necessary.

② After comparing with the system of foreign test, the government should make the system of test in accord with the mutualism and the principle of indiscrimination among nations and cope with such a many issues thoroughly.

I. 서 론

한, 중 수교이후 전통의학 분야의 중국 중의약 대학 유학생 모집광고가 각 언론에 수차 게재되고 있으며 1994년 4월 1일자로 중국이 "특정대상 국가"에서 제외되어(국무총리령, 교육부령)완전 유학자유화 된 이후 중국내 중의약대학 유학생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한의사 면허취득의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부 한의대 지망생들이 현혹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 협정 미체결과 유학생 교류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장치 부재, 중국의 의화 벌이, 중국의 중의학 세계제패의 사고 방식의 왜곡상, 유학생의 중의 대한 근거없는 동경, 비정

상적인 한의 관련 자격취득의 욕구, 한국인들의 무비판적인 중의 선호 등이 맞물려 지금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중국은 국내대학의 치열한 입시경쟁에서 밀려난 실력없는 학생들이 비교적 유학하기 쉽고, 비용도 국내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93년부터 본격화된 유학생들은 2천년 이전부터 배출되며 이들은 대부분이 국내로 유입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대부분은 생활 수준이 열악한 중국에서 활동하기보다는 국내유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1995년) 의료서비스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본

격화되면 2천년엔 의료인력간의 상호 자유로운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해 질 수도 있다. 이같은 예상은 WTO출범으로 한층 현실감각을 더하고 있다. 중국 중의학원 유학생들이 지난 3-4년 동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현재 1,500-2,000명이 넘고 또한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2000명 쯤 되는것으로 알려져 그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현지대학과 연결된 국내의 전문 유학 알선 학원을 통해 유학을 나가고 있으며, 유학 알선 학원에서는 일정액의 유학비만 내면 수학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라도 유학을 보내고 있는 것

Table 1. 자료에 근거한 유학생수

연도별 / 수

연도	유학생수 발표자료	유 학생 수	비 고
1993	민족의학신문	2,000-3,000명 이상 또는 5,000명 이상 추정	중국 27개 중의대학에 골고루 분포, 유학생수는 중의대학 함수반(3년제 중의 이름 성조)과 침구 골상학원 학생 포함
	영남일보	3,000명 추정	1993년 말
1994	연합통신	1,000 여명	중의학원 입학을 위한 어학과정 학생 제외
1995	주간 한국의약신문	2,000여명	미국 한의과대학 유학명(300-400명)과 유학 희망자(200명)제외
	중앙일보	1,500여명	중국 33개 중의학원 분포
1996	주간 한국 의약신문 및 한의신문	1012명	· 보건복지부의 국회제출 국정감사 자료 · 중의학원 연수생 포함 숫자 · 각 15개 중의약대학별 유학생과 기타 6개 대학 유학생 숫자
	한겨레 동아일보 및 뉴스피플	1,546명	· 중국에 유학하는 전체 한국 학생은 8,500여명 · 북경 중의약대학 국가고시 준비위원회 결성 · 주중 한국대사관의 중국내 전 대학 대상으로 한국 유학생 실태조사 결과 인용
	박인범 (연변중의학원 부원장)	3600여명 추정	· 저자 개인적 접촉 · 단기생 포함 숫자
	각 중의대학 한국인 유학생대표자 접촉	1,639명	외국 의과계 대학 졸업자 대학연구(실태조사)
1997	의료개혁위원회	3,000여명 추정	3-5년제 중의학원 재학생 포함

Table 2. 중국 각 중의약대학의 한국인 유학생수 (96년 10월 현재)

대학명	학 년					계	비 고
	5	4	3	2	1		
북경중의약대학	48	45	68	61	61	283	
상해 중의약 대학	49	40	4	7	23	123	
북경침구골상학원	10	15	24	33	15	97	
남경중의약대학	15	42	15	33	30	137	2명의 졸업생이 있었음
천진중의학원	18	42	44	73	65	242	
하북중의학원	0	12	27	21	6	67	1명의 졸업생이 있었음
장춘중의학원						120	잠정 집계
요녕중의학원	0	18	33	8	13	72	
흑룡강중의약대학	6	8	25	25	25	89	
안휘중의학원						30	잠정 집계
광주중의약 대학	0	3	21	10	7	41	
산둥중의약대학	2	6	10	8	3	29	
하남중의학원						20	잠정 집계
성도중의학원						15	잠정 집계
연변의학원	20	21	44	45	31	181-186	20명의 졸업생이 있었음
절강 중의학원	5	5	0	7	6	23	
호남중의학원	0	5	3	0	0	8	
섬서중의학원						5	잠정 집계
호북중의학원						10	잠정 집계
북건중의학원						5	잠정 집계
중경중의학원						15	잠정 집계
운남중의학원						15	잠정 집계
내몽고중의학원						10	잠정 집계
강서중의학원						10	잠정 집계
총계						1,623-1,667	

※ 외국의과계대학 졸업자 및 대책연구(대한 한의사 협회, 1996)

으로 알려져 있다. 더군다나 올해부터 WTO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중국에 유학중인 한의대생들은 막연히 자신의 진로가 순탄할 것이라는 아전인수의 생각을 지니고 있다. 가트에 가입하고 있지 않았던 中國도 결국은 WTO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면허시험제도의 신설, 한국과의 교과과정통일, 양국의 외교적 접촉으로 국내 국가시험 참여자격부여에 이르기까지 상상의 나래를 펼칠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교육정책 및 주무부처의 보건의정책의 미숙덕분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한의사의 의료수급의 문제, 의료의 질 등의 많은 사회문제를 안고 있을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한의대 유학생 현황(수, 연령, 학력 및 수업태도 등), 외국의 국가시험(치과), 인력수급문제, 의료의 질, 문제점 제기, 향후 이에 대한 대책 및 대안 등을 마련하기위해 진행되었다.

숫자, 학력, 연령, 수업태도등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구에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으나 본 논문을 연구하면서 최근 국회의 국정감사자료와 사회적 관심등으로 연구및 연구자료에 의해서 밝혀진 일부 보고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유학생수

1993년부터 일부 신문에 사회문제로 발표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 유학생 숫자가 언급되고 있다. 아래의 표 1과 같이 적게는 1,000여명에서 많게는 3,0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최근 주중한국대사관에서 중국 전대학을 대상으로 중국에 유학온 한국유학생들의 실태조사를 하였다. 96년 10월경에 발표되면서 중국 중의약대학에 유학중인 한국유학생숫자가 1546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에 막연하게 추산했던 유학생 숫자를 이제는 이러한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대체로 정확히 밝혀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각 대학의 유학생 숫자는 표 2와 같다.

Table 3. 일부 중의약대학 유학생의 학년별 학생수 및 평균연령

	학생수	평균연령	
92학번	20	28.6	96년 임상실습합. 97년 2월 졸업
93학번	23	26.7	
94학번	36	28.3	
95학번	43	25.5	
96학번	31	24.7	96년 신입생
협력반	12	35.8	이미 미국에서 중의공부 4-5년 후 중국에서 2년 수업
독일분교	21	44.1	94년에 입학. 서의과는 중국에 와서 수업 받음.
총계	186		

II. 본 론

1. 중국 중의약대학 유학생 현황

현재까지 중국 중의약대학 유학생의 정확한

2) 일부 중의약대학 유학생의 학년별 학생수, 평균연령

표3은 중국내 일부 중의약 대학에 재학중인 한국 학생들의 신상별 조사내용이다. 표에서 보

Table 4. 일부 중의약대학의 남녀, 한국내 주소, 한국 학력

학번	학생수	성비		주소		학력		
		남	녀	서울	기타	대학	전문대	중고
91학번	20	13	7	10	10	6	3	11
92학번	21	16	5	10	11	6	2	13
93학번	24	17	7	14	10	4	4	16
94학번	60	46	14	23	37	11	8	41
합계	125	92	33	57	68	27	17	81

Table 5. 일부 중의약대학 유학생의 수업태도

학번	전체 학생수	적극적		일반적		소극적	
		학생수	%	학생수	%	학생수	%
91학번	20	6	30.0	11	55.0	3	15.0
92학번	21	6	28.6	12	57.1	3	14.3
93학번	24	10	41.7	11	45.8	3	12.5
94학번	60	16	26.7	32	53.3	12	20.0
총계	125	38	30.4	66	52.8	21	16.8

는 바와 같이 학생수는 각 학년별로 12-43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4-44세로 범위가 넓게 형성되어 있었다.

3) 일부 중의약대학의 남녀, 한국 주소 및 한국내 학력

표 4는 일부 중의약 대학의 한국 유학생 학년별 남녀 비율과 한국내 주소를 나타낸 표이다. 남녀별 학생비는 3:1의 비율이며 한국내 주소를 서울과 기타로 구별했을 때 1:1.2정도의 비율이었다. 또한 한국내의 학력은 대졸 : 전문대 : 고, 중, 졸의 비가 1.6:1:4.7이었다.

4) 일부 중의약대학의 유학생의 수업태도

표 5는 일부 중의약대학의 일부 한국 유학생들의 중국에서의 학습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유학생들의 수업태도를 적극적, 일반적, 소극적으로 분류하였는데 적극적(30.4%), 일반적(52.8%), 그리고 소극적(16.8%)이었다.

2. 문제점 제기

[국의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자비유학 자격) 1항에 의하면 고등학교 졸업자로 자비유학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거나 졸업성적 석차가 10%이내에 해당하여 해당 교육감의 인정을 받으면 언제나 유학을 갈 수 있게 되었으며, 제6조 (자비유학 외국어 시험) 제1항에 의해 대학학력

인정 학교를 졸업한 자는 이 시험 없이 유학 갈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졸업은 물론 전문대 출신이나 고교 졸업자도 누구나 쉽게 해외 유학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이 규정을 이용하여 유학 할 만한 실력이 없거나, 최근에는 부유층, 가업 잇기 한의사의 자녀 등이 중국 유학을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 제국과 같이 까다로운 절차없이 소정의 양식과 등록금만 있으면 무난히 편입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볼 때 국가간의 호혜 평등원칙을 들어 해외 유학생의 유입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으나 실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에 대해 제도적으로 방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대책의지 또한 문제가 많다. 서독등 구라파 여러 나라에서는 이국인(치과의사) 의료인에게 자격은 인정해 주되 국내개원은 허용치 않고 있으며, 미국 등지에서는 예비시험제도를 두어 유학생의 자질을 먼저 점검하여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의지와 한의계, 한의과 대학, 한의사 등은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문제를 제기하는데 있어 몇가지 기본적인 원칙으로는 현행의료법이 준수되고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기존의 국내 한의사, 한의과 학생들의 적절한 보호와 기존의 의료인 수급계획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며,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의료인력의 유입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음의 몇가지 사항의 문제점이 제기 될 수 있으며 앞으로 정부 및 한의계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1) 의료의 질 저하

종전에는 국가에서 치르는 해외유학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비로서 유학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으나 유학 개방 정책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원하면 쉽게 유학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같은 정부의 해외유학

보편화 정책과 한중수교이후 한의사 국가고시 응시자격 취득을 위한 외국의 표준화 되지 않은 기관에서 교육 받은 중국 유학생의 증가로 오늘날 한의계에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한의학의 사회적 관심과 고수입등으로 한의사가 한국 내에서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직업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유학을 부추기고 있는게 현실이다. 여기에 일부 유학 알선 기관의 발빠른 유학광고 등으로 최근 4-5년동안 많은 유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정부의 외화벌이, 중의학의 세계화 목적으로 보이지 않게 한국 유학생들에 대한 특혜 등으로 무자격, 능력부족의 한국 유학생들이 유학하고 있다.

의학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고도의 학문으로 능력과 학식, 도덕성등 타직업에 비해 갖추어야 될 요건이 많다. 이와 같이 꼭 필요한 자격등을 무시한 자격부족 및 수업의지가 부족한 학생들이 유학공부를 한다는 것은 의학 본래의 본질을 무시한 행위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을 유학할 수 있게 하거나, 유학자격을 제공한다는 것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아야 할 의료인이 국가의 자격을 빌미로 오히려 인간에게 폐해를 줄 가능성이 많을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의 의료 환경에 비해 모든 시설이나 교육환경 등이 열악하며, 유학생 또한 한국의 한의과대학을 진학할 수 없는 자격없는 유학생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그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일정한 자격을 갖고 진료행위를 한다면 한국 한의학의 질은 크게 낮아질 것이 확실하다. 최근 WTO 체제하의 UR 서비스 개방으로 의료 경쟁력이 크게 문제되고 있는 시점에서 생각해 볼때 의료의 질 저하는 앞으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

2) 한의사 인력 수급 문제

「한의사 인력 수급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90) 취업 한의사는 4400여명이고 9개 한의과 대학에서 1994년 이후에는 매년 650명씩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어 국내한의사 수가 2000년도에

는 9700여명, 2005년도에는 12600여명으로 증가되어 90년도 중반부터는 과잉공급 현상이 초래, 2000년도에는 최고 1700여명 정도가 과잉 공급될 전망이다. 상황에서 해외 한의사(중의사, 동의사) 및 중국 유학생의 유입은 국내 한의사 인력수급 정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국민의 진료 수요를 크게 웃돌 수 있다. 또한 최근 한의과 대학의 증설과 증원으로 한의학과가 무분별하게 허가되고 있으며, 이런 결과 다음의 표 6에서 보듯이 한의사 1인당 국민의 숫자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앞으로 한방 의료기관, 한의사 간의 심한 경쟁, 이권 문제, 감정 대립 등 한의사 인력수급 문제로 인한 의료인의 과잉 배출 뿐만 아니라 많은 부수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Table 6. 연도별 한의사 수

(단위:명)

연 도	한의사 수	한의사 1인당 인구
1980	3015	12645
1985	3789	10770
1988	4932	8511
1989	5432	8511
1990	5792	7401
1991	6120	7070
1992	6839	5384
1993	7569	5820
1994	8179	5435
:	:	
2000	9700	
:	:	
2005	12600	
연 평균 증가율	7.1%	-

자료 : · 보건사회부, 보건사회 통계 연보. 1993
· 보건사회연구원, 한의사 인력수급연구. 1990

3) 학교교육 과정의 차이(학제, 교과내용 등)로 인한 문제

우선 중국과 한국의 학제는 차이가 있다. 한국의 한의과 대학은 6년 (2년 예과, 4년 본과) 과정으로 단일성 학제를 갖고 있으나, 중국은 한국의 한의과 대학 격인 중의약대학 5년, 3년제 중의 양성소인 함수반, 침구골상 학원, 방송통신반, bare foot doctor 제도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갖고 있어 우리의 교육제도와는 크게 차이가 있다. UR/서비스 개방으로 인한 국가간 이동에 있어서도 이러한 학제 등 교육과정의 차이가 나라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느나라도 의료인력의 유입에 대해서 만큼은 적극적인 협상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교육기관의 차이로 인한 문제 외에 한의과 대학 교과과정은 나라마다 문화, 제도, 체제, 교육여건 등으로 차이가 심한 형편에 있다. 다음의 표 7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의 한의과 대학생들은 6년 동안 예과과정에서 16과목, 본과과정중 기초과목은 23과목, 임상 16과목, 기타 6과목으로 총 61과목을 이수하는 반면에 중국의 중의 기초과정 전공 학생들은 5학년 정상 배양 실습을 제외한 총 31-35과목을 이수하며 중의 임상전공 학생은 5학년 졸업실습을 제외한 총 33-37과목을 이수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한의과대학 학생들이 2배 가까운 교과목을 이수하였다. 한국 한의과 대학과 중국 한의과 대학의 교과과정은 많은 차이가 있으며, 학제의 5년, 6년 차이 이외에 학교간의 차이, 시간, 학점의 차이, 교육 과목과 내용의 차이 등은 앞으로 한의과 대학을 졸업한 후 진료범위와 행위가 다르게 되며 같은 한의사(중의사)라고 해도 진료 내용이나 醫案이 같지 않기 때문에 동일 직종의 한의사라고 할 수 없다.

4) 한의사 국가 시험제도의 문제점

현행 한의사 국가고시제도는 정규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학생들 위주의 시험으로 한의과 학생들이 쉽게 합격할 수 있는 문제 은행식 오지선다형

이다. 현재의 한의사 국가고시시험과목은 11개 과목(내과학, 침구학, 부인과학, 소아과학, 외과학, 신경정신과학, 안이비인후과학, 본초학, 한방생리학, 예방의학, 보건법규)이며 1984년부터 현재까지 전과목 총점 60점이상, 매과목 40점이상 득점자와 일반과목은 복수 과락제를 적용하는 전과목 과락제를 시행하고 있다(표 8). 매년 국가시험 시행횟수는 1회 이상 국립보건원장이 시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험문제는 30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배점은 340점 만점으로 치루어지고 있다. 한의사 국가고시 제도는 문제은행식으로 최소한 1년동안 문제를 모두 외워 시험에 응한다면 누구나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의계가 가장 치증하여 개선시킬 부분은 중국 유학생 문제이기 앞서 국내 한의사 시험제도의 개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아무리 중국 유학생이 몰릴 듯 들어온다고 해서 중국 유학을 제재하거나 중국 당국에 유학생을 선별하여 받아들이라고 하던가 또는 중국의 한의학 수준을 높이라고 하는 등 남의 문제에 깊이 간여 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우기 세계 각나라가 서로 문호를 개방하여 상호간에 경제교류도 활발한 이때 과거로 되돌아가는 행정적인 우를 범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국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시키는 일이라고 하겠다.

현행 우리나라 한의사 국가고시의 첫번째 문제점은 국가시험방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립보건원의 주관하에 실시하는 객관식 위주의 국가고시(Table 8)는 외국 한의대 졸업자에게 요령만 가르쳐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흔히 족보라고 불리우는 객관식 문제를 외우기만하면 국시는 무난히 합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97. 2.20) 의료개혁위원회에서는 “보건 의료인력 국가시험 관리방안”정책토론회에서 현재 정부가 맡고 있는 국가 자격 시험제도는 운영관리인력 부족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지속성이 없는데다 문제은행식 출제로 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사, 한의사, 간호사등 각종 보건 의료인력 국가 자격시험을 통합관리하는 전담기구 설치법안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문제점은 국가고시의 합격률(Table 9)에 있어서 한의사 국가고시 합격율이 의사나 치과 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고시가 너무 쉽게 출제되어 의료인 자격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지고 응시하는 거의 모든 사람을 합격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서 치과고시는 92년부터 매년 합격율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문제의 질을 높여 무작정 유입되는 외국 치대 졸업생에게 일정한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로인해 실력 없는 사람에게는 자격을 주지않아 국민보건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의사고시도 95년도부터 임상문제를 대폭 강화하여 국가고시로 의료인의 자격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고 있고 이는 앞으로 계속되는 추세라고 한다.

그러나 한의대 국가고시는 90년 부정행위와 91년 대량 불합격을 제외하고는 매년 95%이상의 합격율을 유지하여 마치 국가고시는 보기만 하면 합격하는 가벼운 통과의례 정도로 인식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독일 일본에서는 질이 낮은 인력의 자국내 유입을 막기 위하여 국가 시험 이외에 예비시험제도와 일정한 수련기간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와같은 제도적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5) 한국인의 뿌리 깊은 중화사상과 강력한 경쟁상대국

4000여년의 긴 역사속에서 한국과 중국은 서로의 국가에서 독창적으로 발생된 문화를 상대방의 국가에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지금까지 독립된 구도로 발전해오고 있다. 그렇지만 두나라 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독립적이며 자주적이며 호혜적이라기 보다는 한국측에서 더

Table 7. 한국과 중국의 한의과대학(중의약대학) 교과과정 내용 비교

단위 : 연간 강의시간수

	국가		중국(중의기초전공)	중국(중의임상전공)	
	교과서	한국			
예과(교양 및 한의학 기본영역)	일반물리	128	72 (물리화학생물포함) 72+126	108(생물, 화학)	
	일반화학	128			
	일반생물	128			
	한의학개론	256		90(중의 기초)	
	한의학한문	384	108(의고문)	144	
	의학정보처리학	192	54(컴퓨터원리응용)		
	의학영어(1,2)	128+128	288	312	
	원전(본과시간 포함)	256	108(내경)	108	
	비교해부학	128			
	약용식물학	128			
	본초학총론	128			
	의사학	128	36(의학사)	36	
	중국어 강독	192			
	유기화학	128	108		
	동양철학	128			
	행동과학	128			
	고등수학		72		
	본과 (기초영역)	상한론	128	54+54(금궤요략 포함)	118+90
		병리학(한방)	208		90
생리학(한방)		180		99	
본초학		290		126(중약학)	
방제학		256	108	108	
경혈학		320			
진단학		128	90	108	
예방의학		384	72(위생학)		
신경해부학		288			
미생물학		128	72(미생물학·기생충학)	72	
의료법규		64			
구급의학		64			
의료관리		64			
양방진단학		86		108(진단학 기초)	
해부학		256		100	
조직학(발생학포함)		64+64	1108(조직배태학)	54	
면역학			72		
양방병리학		128	126(병리 및 병리생태학)		
상한온병학		256	54	96	
각가학설			54	108	
양방생리학		96	126		
내과총론		64			
생화학		320			
약리학	192	90	90		

	국가		중의 (중의기초전공)	중의(중의임상전공)
	교과서	한국		
본과(임상영역)	간계내과학	416	중의내과 (234)	중·서의내과 225+144
	심계내과학	416		
	비계내과학	480		
	폐계내과학	416		
	신계내과학	384		
	침구학	640	126	126
	부인과학	480	72+144 중서의산부인과	90(중의 산부인과)
	소아과학	416		72
	신경정신과학	448		
	사상의학	448		
	재활의학과	352		
	외과학	384	90+63 (중서의 외과)	72+36(중서의외과)
	오관과학	384		54+45(안이비인후과)
	방사선과학	352		
	임상병리과학	96		
	추나학	192		
	중의골상과			72
	중의구강과			36
	기타과목	법의학	128	
심리학		48		
체육		32		
윤리학		48		
한국경제의 이해		48		
의학교수법		128		
기타		예1-본4(6년) 의 강의 및 실습시간 포함	· 1-4년간의 강의시간 만 포함 · 5학년의 정상배양 실 습제외	· 1-4년간의 강의시간 만 포함 · 5학년의 졸업(임상실 습)실습제외

*본 자료는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시간표와 중국 중의약대학의 시건을 비교한 자료임.

많이 중국으로부터 받아왔다고 볼수 있는 역사적 사실들이 많으며 특히 한의학분야에서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중국 여행이 자유화되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 여행을 하고 있는데 중국내 한약재를 싸들고 쇼핑을 하거나, 중국제 약은 무조건 소유하려는 마음, 그리고 중국의 한의사가, 중국의 한의약이 낫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는게 현실이다. 저자는

중국내 한국 유학생 숫자가 크게 증가하는 이유나 중국제 한약재의 싸들이 구입도 한국인의 의식속에 중국이 한수위라는 뿌리 깊은 중화사상의 결과라고 본다. 이러한 이유외에 최근 중국은 국가의 전폭적인 제도적 경제적 지원으로 한의학의 학술적 측면과 임상수준면 그리고 일부대학에서는 한국의 한의과대학보다 학문적 여건이 나은 대학도 있다.

Table 8 한의사 시험과목, 배점, 출제방식

주관식점수/객관식점수

시험과목	연도별	'91-현재까지	비고
배점계		80/260	○ '84년 예방법규 → 예방의학과 보건의약관계법규로 분리 ○ '91년 본초학, 한방생리학 신설
내과학		30/72	
침구학		20/39	
부인과학		10/33	
소아과학		10/33	
외과학		0/10	
신경정신과학		0/10	
안이비인후과학		0/10	
본초학		0/10	
한방생리학		0/10	
예방의학		10/18	
보건법규		0/15	

Table 9 '89~ '95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국가고시 합격률

구분	연도	89	90	91	92	93	94	95	계
한의사		99.05	70.84	63.67	92.11	98.04	95.88	97.06	90.97
의사		92.90	90.02	97.24	92.95	97.76	97.45	64.25	89.72
치과의사		95.16	95.03	54.59	91.27	87.41	80.06	72.21	82.25

* 90년 한의사 국가고시는 부정행위로 인한 탈락이기 때문에 통계에서 제외

* 94년 한의사 국가고시는 2회를 합산하여 통계

또한 최근 세계는 UR협상의 결과로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출범되어 하나의 시장 하나의 경제권으로 새로운 세계무역질서를 관장하는 기구가 생겼다. 세계 각국의 시장개방확대와 서비스 교육자유화라는 국가간 의사면허의 상호인정, 의료기관의 설립, 의료인력의 이동문제가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양질의 의료서비스 기회가 많아지고 의료기관의 서비스경쟁을 유발하여 질적 개선의 효과와 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현대의학은 물론 한의학분야에서 의료사대주의가 조장될 수 있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한국한의학과 강력한 경쟁 위치에 있어 앞으로 중국의 WTO체제 가입 여부에 따라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6) 기타

현행 의료법 제5조에 의하면 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학계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하는 면허를 받은자에 限해 한국의 국가고시를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현재에 중국은 한의사 면허제도가 없기 때문에 중국 유학생들의 한국내에서의 한의사 면허 시험 자격이 없어, 그들이 한국으로 유입된후 불법의료 가능성이 커 의료질서 문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한국 의료법(법 질서)의 파괴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양국간의 문화 협정이나 관련국과의 교육기관 상호인정제도 도입 등 교육교류에 대한 상호 이해 없이 이러한 불법적인 유학이 계속될 경우 한국 학생의 경제적 시간적 피해, 외화의 낭비 등으로 양국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가능성 많다.

3. 대책 및 대안

1) 단기 대책

(1) 불법유학의 홍보 및 유학알선 업체의 단속

① 중국 유학이 불법이라는 내용을 정부와

한의계가 공동으로 홍보해야 한다.

최근 중국 유학생들이 급격히 증가하여 앞으로 그들이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 올 것이다. 그동안 더 많은 유학생이 증가하고 유학예비생의 증가로 그들 나름의 불법적인 Man Power집단을 형성하여 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실제로 최근 베이징에서는 중의학을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들이 “베이징 중의약대학 국가고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의 국가고시 자격을 쟁취하기 위하여 정부에 고시 응시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국가고시의 실시여부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도 유학생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이것이 사회문제화되어 한번쯤은 특별시험이라도 시하지 않겠는가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음을 신문의 보도 내용에서 볼 수 있다. 이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숫자가 되기 전에 정부와 한의계가 공동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친다면 일을 사후에 해결하는 것보다 사전에 미리 막는 것이 좀더 쉽게 대처 할 수 있듯이 중국 유학은 불법이며, 유학후에도 국가시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와 공동으로 홍보해야 되는 이유는 광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 있기 때문이다.

② 해외 유학 알선업체들에 대한 규제법의 제정과 단속

해외 유학 자유화와 함께 늘어만 가고 있는 해외 유학 알선업체들에 대한 규제법을 하루 빨리 제정하여야 하며, 또한 현행법하에서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하여 이들 업체의 단속이 행해져야 한다. 단속의 방법으로는 중국에서의 수학 이후 국내 한의사 자격 취득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능한 것으로 일반인을 기만하여 알선비를 편취하는 형태이므로 사기죄에 준하여 단속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중국 중의약학원 유학생의 정확한 현황 파악

어떤 문제의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관련 문

제의 실태 및 현황 파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본 연구에서는 일부 추론 형식으로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 이 글의 한계를 갖고 시작했다. 따라서 앞으로 가능한 빠른 시간에 중국 중의약대학에 유학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의 숫자, 학력, 남녀, 나이, 고등학교 석차, 각 중국대학별 현황(학제 및 학기 교수 현황, 부속병원, 대학시설, 장비 보유현황, 교과과정, 입학절차, 최종성적 취득일)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최근(1994년) 대한 치과의사 협회에서는 필리핀의 조사기관과 함께 필리핀 치과대학의 교육 및 시설 현황을 정확히 조사한바 있다. 한의계의 중국 중의약대학 유학생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은 유학생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3) 국가시험 응시자격 및 질평가 강화

① 국가시험 제도 개선

현행 국가고시 제도는 한국의 정규 한의과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 위주의 시험으로 일종의 통과시험으로 생각 할 수 있다. 국가고시의 족보가 있어 1년동안 문제의 답안만 외우면 합격 할 수 있는 시험인 것이다. 최근 몇년 동안의 국가고시 합격율(100-95%)에서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앞으로는 국가고시의 출제운영 및 합격요건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고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최소한 이런 국가고시의 제도적 미비점은 현 중국유학생들이 졸업을 시작하기 전에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95) 의협이 기존의 국가고시문제 형태를 탈피하여 새로운 임상능력 평가 시험문제로 문제형태를 바꾸어 시행한결과 한국의 응시생의 대거 탈락(합격율 64%) 뿐만아니라 외국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한 60명중 1명(1.6%)만이 합격한 사실이 있다. 이런 결과는 시험이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filter 역할을

할 수 있어 공부하지 않은 학생은 합격할 수 없는 시험이 필요하다.

치과협회도 이미 필리핀 유학생들의 유입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한의계도 국가적 차원에서 엄격하고 공정한 시험관리를 통해 능력 없는 학생들은 도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가칭) 한국한의사 국가시험원이나 국가고시위원회 등의 구성이나 각종 보건 의료 인력 국가시험을 통합관리하는 전담기구등의 설립을 추진하여 한의사 국가고시를 총괄 관장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칭) 한국 한의사 국가시험원에서는 현행 국가시험의 시험관리상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여 신규 문제의 체계적 개발, 제도 개선, 시험내용 문제의 질, 난이도 타당성, 신뢰도 조사, 시험 과목별 출제 기준 선정, 시험관리의 전문화를 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으로는 국가시험 응시자격 시험제도 도입방안이다. 외국의 교유기관에서 수확후 면허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국내에서 외국인 예비국가시험을 거쳐 국가시험에 응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둘째 대안으로는 졸업후 일정기간 임상 수련후 국가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외국에서 면허를 취득한자에 한하여 국내에서 일정기간 수련후 국가시험에 응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마지막 대안으로는 국가고시를 필기시험과 임상능력평가 시험으로 구별하여 필기시험 뿐만 아니라 증례를 통한 임상실기능력과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실기능력과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실기시험을 국가시험에 포함하여 지금의 국가시험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국가시험 질평가 기능의 강화, 외국 수학 인력의 학력인정 문제 및 국가시험 자격 관리, 그리고 외국 수학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및 연구 등을 합리적으로 대처할 국가시험 전담기구의 기능강화 및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4) 관련 단체들(의협, 치과협회)과 공조

필리핀 유학 치대생이 국내 치과 국가고시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정확히 86년부터였다. 86년에 3명이었던 것이 점차 늘어나 90년에는 무려 69명이 국내 시험에 응시한 것이다. 그 이후 계속 증가하여 95년에는 국내 치과대학 졸업용 시생 785명 해외 유학응시생(필리핀 254, 미국 10명) 264명으로 국내 치과 대학 졸업용시생의 30% 가까이를 차지 하고 있으며, 합격율은 15.6%(41명)으로 나타났다. 최소한 치과협회는 1986년부터 해외유학생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세워왔으며, 해외유학생 문제만큼은 한의계에 비해 한 수 위다. 치과협은 지금까지 나름대로의 이 문제에 대한 정책개발과 정부에 대한 건의등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필리핀과 중국은 서로 나라의 성격이나 유학생의 규모등 여러면에서 차이가 있으나 앞으로 대정부 압력, 국민여론 조성등 공조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5) 중국당국과의 외교적 노력

중국유학생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당국자들은 최근 유학생 문제에 대한 두 나라의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다. 중국의 전통의약을 총괄하는 중국 국가 중의학 관리국 담당자가 내한하여 중국에서는 외국인에게 어떠한 의료면허도 교부하지 않으며 합수반은 중국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세계보건기구의 공인자격증 제도도 사실과 다름을 국내 언론을 통해 분명히 밝힌바 있다. 또한 한국의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중의약대학은 국내 한의대와 학과목이 달라 국가고시 자격을 줄 수 없으며 줄 계획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중국정부도 한국정부도 면허나 국가 시험의 기회를 주지않겠다는 것이지만 유학생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무언인가 잘못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정부의 결과 속이 다른 정책, 한국 보건복지부및 교육학의 확실한 의지 부

족 등 양국정부가 아직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자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유학생문제는 양국간의 외교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우선 이에 대한 중국정부의 확고한 기준과 대책이 필요하며, 한국정부와의 외교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2) 중장기 대책

(1) 한의과 대학의 신설 및 증설억제

한 연구에 의하면 한의사와 치과의사는 현재 과잉배출되고 있어서 중국유학생의 유입은 의료수급에 많은 악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앞으로 중국유학생들의 대거 유입은 정부의 의료인력 계획에 큰 차질이 올 것이 확실하다. 국내의 한의과 대학의 신설과 기존 한의과 대학의 증설 억제, 학생수 감축 등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표6 참조)

(2) 정부의지

철저한 의약관리 및 통제로 양질의 의료인이 배출되도록 제도적, 법률적 장치를 강화해야 하며, 관련 단체들과의 밀접한 협의와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외국의 국가고시 제도 등을 비교 연구하여 국가간의 상호주의와 무차별 원칙주의 제도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차후로 유학생의 자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거나 의료인의 향후 올바른 수급계획 등을 철저히 연구 대비하여 국내의료기관, 의과대학(한의과)의 정상적인 교육이 진행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지난 4-5년 동안 중국내 중의약대학의 한국유학생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앞으로 그들이 유입될 97년 이후 한국 한의계 및 정부는 엄청난 충격과 사회문제를 일으킬수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현황파악, 문제점 및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1. 중국 중의약대학 유학생 현황

1993-1997년 사이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1000-5000명 이상으로 자료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실태조사에 의한 자료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주중 한국 대사관의 중국내 중의약대학 한국유학생 실태조사와 중의약대학 한국유학생 대표자를 통해 대체적으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결과 1500-1600여명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일부 유학생의 평균 연령은 24-44세이며 남녀 학생의 비는 3 : 1, 학력은 대졸 : 전문대졸 : 고, 중졸의 비가 1.6 : 1 : 4.7로 나타났으며 수업태도는 적극적 : 일반적 : 소극적 비가 30.4:52.8:16.8%로 나타났다.

2. 중국 중의약대학 유학의 문제점

① 일정한 유학 자격이 없이 무분별한 유학으로 한의계 전체적인 의료의 질 저하가 예상되며 의료인력의 과잉배출로 국민의 한방진료 수요를 크게 웃돌수 있다. 또한 예상 및 예견 인력 수급 문제의 예측 불가능으로 정부의 의료인력 대책에 많은 혼란이 발생 할 수 있다.

② 학제나, 교육시간, 교과내용과 교과목의 상당한 차이가 있어 중국 중의약대학 졸업생을 올바른 한국 한의학 측면에서 볼 때 한의학 교육을 했다고 볼 수 없다.

③ 100%에 가까운 합격률을 나타내는 현행 국가 고시제도의 문제점, 역사적으로 뿌리깊은 중화사상과 WTO체제 속의 한의학분안에서 강력한 경쟁상대국임을 예상할 때 중국 유학생문제는 많은 부정적인 측면이 내포되어 있다.

3. 중국내 중의약 대학 한국 유학생 문제의 대책

당장에 실시해야 하는 대책으로는

① 중국 유학의 불법적인 내용을 홍보하여 유학생들이 더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들이

manpower를 형성하기 전에 정부와 한의계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

② 해외 유학 알선 업체들에 대한 규제법이 제정과 단속이 필요하며

③ 현재의 중국 중의약학원 유학생의 정확한 현황, 숫자파악 및 중의약대학의 대학별 현황이 필요하다.

④ 현행국가시험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험제도의 강화와 단계별 실시 (가칭 한국 한의사 국가 시험협 설립, 임상능력 평가 시험 첨가 국가시험 응시자격 시험제도, 임상수련후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 등의 대책이 필요하며

⑤ 외국 유학생 문제 성격상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의협 특히 치과협과 공조 대응이 필요하다.

⑥ 유학생 문제는 양국가의 외교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중국 당국간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 한의과 대학의 신설 및 증설 억제와 자구적 노력이 필요하며

· 외국의 국가고시제도를 비교연구하여 국가간의 상호주의와 무차별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 의료인의 올바른 수급계획 등을 철저히 연구 대비하는 정부 의지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대한 치과의사 협회, 외국 치대 교육 및 시험 현황-필리핀-, 1994.
2. 고문사 편집부편, 의료관계 법규, 고문사, 1988.
3. 중국 한의대 유학생 모집에 따른 문제, 대한 한의사 협회 1994.
4. 치의신보, 1990.2
5. 사단법인 대한 한의사 협회 홍보위원회, 한 의학 관련기사 모음집, 1995
6. 대한 치과의사 협회 학술위원회, 치과의사 국가 시험제도 개선방향, 1994.11

7. 서울시 한의사 협회, 중국 유학생문제 따른 대책, 1994.
8. 이선동, 김태희, 박경식, UR서비스 개방에 따른 한방의료의 대처방안 연구 상지대학교 논문집 제17집 1996.
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제 39호, 1993 제 41호 1995.
10. 대한 한의사협회, 외국의과계대학 졸업자, 대책연구(실태조사)
- 중국 중의대를 중심으로 - 1996.
11. 의료개혁위원회, 외국 수학교의료인력의 자격 인정문제(안) 1997.
12. 전국 한의과대학교육협의회, 대한한의학회 96년도 전국한의과대학 교수 workshop 1996년도 한의과대학 학습목표 개정사업, 1997.
13. 한의신문, 1996. 9.9, 10.21. 1997. 2. 3.
14. 동아일보, 주중한국대사관 중국내 한국유학생 실태조사내용 1996.11. 1997. 2.
15. 보건사회연구원, 한의사 인력수급 연구, 1990.
16. 한겨레, 1996.11.2
17. 뉴스피플, 1996.12.
18. 주간 한국의약 신문, 1996.10.15
19. 기타, 자료